



선보유니텍, 'H2 MEET'서 PEM TYPE 생산설비 독보적 경쟁력 입증

선보유니텍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H2 MEET 2023'에 참가해 PEM TYPE 수전해 설비를 비롯해 주력 제품인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H2 MEET에는 18개국 해외 기업 88개사를 포함한 300여 개의 에너지 기업이 참가해 ▲수소 생산(수전해·탄소포집·신재생에너지 등) ▲수소 저장·운송(수소충전소·수소탱크·액화/기체·파이프라인·육/해상 운송 등) ▲수소 활용(모빌리티·연료전지·서비스·철강·화학 등) 관련 기술들을 홍보했다. 선보유니텍은 H₂ GEN 100(50KW)부터 H₂ GEN X(XMW)까지 Single Stack 과 Multiple Stack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수전해 설비 모델을 출품했다.

선보유니텍이 전시회에 출품한 PEM TYPE 수전해 설비는 AEC TYPE 수전해 설비에 비해 부식 확률이 낮고, 높은 전류밀도 및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효율이 높아 장치의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선보

유니텍은 수전해 설비의 품질 경쟁력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50KW·고기원 100KW·두산 300KW·울산테크노파크 500KW·전남테크노파크 1MW·한국남부발전 2MW 등 선보의 설비 제작 및 납품 실적도 홍보했다.

3일간 이어진 전시회에서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및 MOU 체결, 컨퍼런스, 기술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됐다.

선보유니텍은 이번 H2 MEET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기술 역량을 한층 더 성장시켜 음이온 교환막 AEM 수전해 STACK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PEM TYPE과 유사한 방식으로, 음이온 교환막을 전해질로 사용해 수소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선보유니텍은 중국·호주·유럽·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각국 철강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 ISO 내부 심사 대응 실무자 교육 실시



선보는 9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다대1공장 교육장에서 ISO(국제표준기구) 내부 심사 대응을 위한 실무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1일차 교육에서는 ISO9001(품질 경영 시스템)·14001(환경 경영 시스템)·45001(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내부 심사와 관련해 심사 개요와 표준, 심사별 요구사항, HLS(ISO 문서 표준화 구조)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작성 기준, 사례도 함께 소개

됐다. 2일차에는 내부 심사원 기법 및 실습 교육과 리스크 관리 경영시스템(ISO31000), 위험성평가 작성 및 사례 소개가 진행됐다.

ISO 심사원의 일종인 내부 심사원은 소속 기업의 경영 시스템 유지와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부 심사원 과정을 수료한 실무자들은 ISO 공식 심사를 받기 전 기업 및 조직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내부 심사와 자체 심사 등을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회사 소식

선보공업, 3개 기업과 12K CBM급 LCO₂ 캐리어 공동 개발 MOU 체결

선보공업은 동성화인텍·케이조선·한국선급(KR)과 12K CBM급 액화 CO₂(LCO₂) 캐리어 설계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선보공업이 화물 처리 시스템 및 연료 공급 시스

템 개발을 주도하면 케이조선이 LCO₂ 운반선(19bar 중압식)의 개발 및 설계 최적화를 주도하는 식이다. 동성화인텍은 LCO₂ 화물탱크와 LNG 연료탱크 개발을 담당하며, KR은 선급규칙 및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설계에 대한 개념승인(AIP) 인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체결식에서 각 기업은 프로젝트 성공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탈탄소화를 주도할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선보공업을 비롯한 프로젝트 참여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은 효율성이 향상된 12K CBM급 LCO₂ 캐리어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보공업은 발 빠른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기술 및 업무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회사 소식

“추석 잘 쇠셨는지요?” 격려 인사의 날



‘역대급 황금연휴’로 기대를 모았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출근일인 10월 4일 임직원들이 아침 격려 인사를 나눴다.

선보Family는 긴 연휴가 끝난 10월 첫 주를 맞이하며 따스한 격려와 덕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이번 추석 연휴가 총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선보Family는 오랜만에 친인척·지인들과 모여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아침 인사에는 각 공장 임원들이 사업장 입구에 나란히 서서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맞이하며 악수와 응원을 건넸다. 임원들은 초가를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일상적 건강관리와 컨디션 조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 소식

9월 커뮤니케이션 데이 진행



부서 간 장벽 해소 및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데이가 9월 21일 저녁 본사 교육장에서 열렸다.

8월 진행을 담당했던 플랜트설계 부서에 이어 9월

커뮤니케이션 데이는 선보유니텍 설계부(설계5팀·6팀·8팀)가 맡아 이끌었다. 각 팀은 담당 임원과 팀장 주도로 부서 소개 발표 PT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계부는 소개 자료에 팀원 전원의 사진과 함께 각 팀원의 개성과 센스가 돋보이는 ‘동료에게 전하는 한마디’와 개별 역할 등을 소개하며 재미를 더했다.

오는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릴 커뮤니케이션 데이는 선보공업·선보유니텍 연구소가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소식

『왜 일하는가』 3분기 전사 독서토론회 개최

선보Family가 9월 21일 3분기 전사 독서토론회를 개최해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평과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독서토론회에서 선보Family는 많은 CEO와 직장인들의 대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왜 일하는가』(이나모리 가즈오 저)를 읽고 부서 별로 느낀 점과 나누고 싶은 생각들을 공유했다. 경영지원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팀별 우수서평을 선정하고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 서평

이 책은 앞서 읽었던 『사원의 마음가짐』의 저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와 더불어 일본의 존경 받는 3대 기업가 중 하나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가 펴낸 책이다. 일벌레로 불릴 만큼 일에 전념했던 이나모리 가즈오는 불과 27세에 자본금 3,000만 원으로 ‘교토세라믹’을 창업해 연 매출 16조 원을 달성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었고,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며 파산 위기의 ‘JAL’을 흑자로 돌려세운 대단한 기업가다.

책은 그의 경영철학과 함께 ‘왜 일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책은 주로 ‘왜 일하는가’보다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역경에 부딪혀도 성실하고 우직하게 맡은 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가난한 집안에 특출한 재능도 없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대학 교수의 추천으로 타지의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가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첫 월급부터 밀리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회사를 벗어나고자 차라리 자위대에 지원하는 시도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도망에 실패하며 회사에 주저앉게 되고, 망해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자 그는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해 보자’였다. 그는 전공을 살려 성공한 게 아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자신의 일에 쉬지 않고 매달리면 결국 ‘천직’이 된다는 것을 몸소 입증한 것이다.

“한 가지를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세상사의 본질에 눈뜨게 된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들어 보라…” 그의 말은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전공인이었던 그가 고도 기술을 요구하는 파인세라믹을 스스로 완성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은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는 말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많은 사람은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자신의 분야는 물론이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책임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과가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일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특히 많은 신입사원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대부분 ‘일이 단순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 본인의 일이 불만족스럽다면, 일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낼지 고민해 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성자 이종필 책임(전산팀)

회사 소식

9·10월 채용박람회서 지역 우수 인재 발굴 나서



선보는 9월 20일과 10월 5일 각각 '희망이음 부산중견기업 잡페어'와 '2023 사하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구인 활동을 펼쳤다.

부산중견기업 잡페어는 부산 대표 중견기업과 연계해 IT 및 이공계열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디지털·엔지니어 분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보는 ▲설계 ▲연구 ▲전산 ▲총무 ▲가스시설 안전관리 ▲품질경영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 채용을 실시했다.

사하구청과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한 사하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연구(설계) ▲품질관리 ▲Project Manager 부문에서 구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증명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되며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선보는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채용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복지

금연펀드 참가자에 '6개월 성공 선물' 전달



선보는 3월부터 시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인 금연펀드 참가자 7명을 대상으로 6개월 성공 선물을 전달했다.

9월 21일 오전 대대1공장 의전실에서 진행된 선물 전달식에서는 사하구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해 금연펀드 참가자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오메가3 및 비타민 영양제를 수여했다.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연 상담과 이산화탄소 검사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펀드 완주와 지속적인 금연 유지를 기원하며 마무리됐다.

선보가 사하구보건소와 협력해 진행 중인 금연펀드는 참가자와 회사가 매월 6만 원씩 적립, 금연 성공 시 적립금에 축하금을 더해 지급하고 실패 시 기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펀드 참가자는 7명으로 12월까지 적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보Family

우리 동호회가 궁금해? - 선보피스 오토캠핑 동호회

'혼캠족', '차박라' 등의 유행에서 볼 수 있듯, 국내에서 캠핑은 이미 대중적 취미의 반열에 올랐다. 삶의 멋을 아는 선보Family도 일찌감치 대세에 동참했다. 산과 바다, 계곡을 누비며 대자연의 매력을 즐기는 낭만러들의 모임, 선보피스 오토캠핑 동호회다.

오토캠핑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호회는 선보피스의 김해 이전으로 기존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들과 교류하며 발견한 공통관심사를 계기로 만들게 됐습니다. 매월 1회 자연을 벗 삼아 친목을 도모하고 회사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으며 힐링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동호회의 특징이나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저희는 회원들의 가족들도 함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보Family'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동호회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동호회의 자랑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동호회에는 캠핑 유경험자와 무경험자가 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텐트 피칭(pitching, 설치)하는 법을 몰라 버벅이던 회원들도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구역 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캠핑의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폭풍우가 치는 날 우중 캠핑을 하며 계곡에서 물놀이도 했는데, 힘들었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현재 선보는 복지수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호회 활동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본 사례가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지?

저희는 선보 복지 정책을 심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의 동의하에 복지수당 일부를 회비로 충당해 경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회사의 활성화 지원이 없었다면



동호회가 탄생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사드립니다. 캠핑 특성상 1박이 필수인데, 짧게 느껴질 때가 많아 기회가 된다면 연중 하루라도 '동호회의 날'을 지정해 오후 반차를 써 2박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가고 싶은 활동 분야가 있는지?

아직 저희가 동계 캠핑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이 크다 보니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겨울엔 해보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근처에 장박*을 해서 누구나 주말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보피스 남직원 대부분이 동호회 회원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가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모두 선뜻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새로운 장소에서 다채로운 힐링을 누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어필 타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여행도, 맛집도, 힐링도 캠핑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가 김해에 있다 보니 본사 직원들과 교류가 많지 않지만, 캠핑에 관심이 있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선보Family는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선보인'이라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한 번 와보면 계속 오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몸이 멀지 마음은 먼 것은 아니니까요.

인터뷰=오토캠핑 동호회 정남철 회장(선보피스 생산팀)

* 캠핑장을 장기간 예약해 텐트를 쳐놓고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찾아가 캠핑을 즐기는 것

EVENT 결과

계묘년 추석맞이 '추억의 점선 따라 그리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추첨 진행 안정빈 책임(전산팀)

<SUNBO NEWS> 9월호 '추억의 점선 따라 그리기' 이벤트에 68명의 선보 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등** 치킨 교환권 : 이동민 선임(재무팀)
- 2등** 햄버거 세트 교환권 : 권진영 책임(품질경영2팀), 이화진 사원(설계운영팀)
-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 강형주 선임(전계장생산설계팀), 박상계 책임(품질경영2팀), 이노경 선임(설계2팀), 이준희 선임(경영기획), 장봉수 선임(설계2팀)

EVENT

스도쿠 천재를 찾습니다

			4	9	6	8	3	
3		6		1		7		
	8				3			
6		2	5				8	4
		1	6				5	
5	4				7		1	3
4			9	6			7	8
	2		3				6	
			1	8	5	4	2	9

성명:

부서:

<SUNBO NEWS>는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킬링 타임계의 최고봉, '스도쿠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모든 가로줄·세로줄에는 1~9가 중복 없이 하나씩 들어가야 하며, 3x3칸으로 이뤄진 하나의 박스에도 1~9가 중복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큰 스타일을 느끼고 싶다면, 시간제한을 두고 풀어보세요.

- ▶ 제출일 : 10월 31일(화)까지
- ▶ 추첨 : 11월 2일(목) 무작위 추첨 후 선보 Family SNS 계정을 통해 발표
- ▶ 상품 : 1등 치킨 교환권(1명)
2등 햄버거 세트 교환권(2명)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5명)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선보공업	장호신 상무	설계4팀	1998.10.12(25주년)
	김태호 책임	비나신 생산팀	1998.10.12(25주년)
	구진호 책임	설계6팀	2018.10.15(5주년)
	손판석 선임	설계6팀	2018.10.08(5주년)
선보하이텍	김효희 선임팀장	생산2팀	2008.10.06(15주년)
협력사	이현철 사원	재경공업(다대1공장)	2018.10.01(5주년)

Solution Provider
Alternative Clean Fuel System

KORMARINE 2023
International Marine, Shipbuilding, Offshore, Oil&Gas Exhibition
OCT 24 (TUE) - 27 (FRI) BEXCO, BUSAN, KOREA
Booth NO. LB01(Entrance of Hall3)

TEL. +82 51 261 3454
FAX. +82 51 261 3455

NARINE

OIL&GAS

GREEN ENERGY

SUNBO NEWS를 만드는 사람들

- 총괄 편집 김자영 선임
- 인사, 교육 김정석 팀장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과장, 배상준 선임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제작 미디어룸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본사	김자영(10.04)	김상도(10.18)
	최두영(10.04)	이재현(10.18)
	민병철(10.05)	정 호(10.23)
	한승진(10.07)	장지훈(10.29)
	조정욱(10.08)	이종필(10.30)
	장동휴(10.17)	이준희(10.30)
다대1공장	정지원(10.02)	신광식(10.22)
	이창호(10.19)	윤희동(10.22)
다대2공장	노재근(10.01)	이창환(10.10)
	장상권(10.01)	정성훈(10.12)
	백성훈(10.02)	박재현(10.27)
구평공장	배준희(10.06)	하경원(10.18)
	안석영(10.08)	장승수(10.21)
	전인성(10.08)	진성은(10.21)
	공대성(10.09)	장정현(10.27)
	김동현(10.14)	이상훈(10.31)
	윤치호(10.16)	
대불공장	고기홍(10.14)	
영암공장	박정길(10.04)	말 리(10.14)
	김덕현(10.09)	서정호(10.21)
선보피스	최영철(10.05)	투 안(10.26)
	김홍기(10.06)	하창원(10.28)
	양태진(10.07)	김남송(10.29)
	김성만(10.12)	양상모(10.30)
	박경석(10.20)	
부설연구소	문몽영(10.10)	메바다(10.17)
	백승인(10.16)	배승일(10.18)

입사기념일

본사	정재현(10.01)	노현우(10.11)
	장호길(10.02)	김태호(10.12)
	정종원(10.04)	장호신(10.12)
	김희태(10.10)	
다대1공장	이현철(10.01)	구태현(10.10)
	반 민(10.04)	임정오(10.12)
	반유선(10.07)	국 익(10.14)
다대2공장	정성훈(10.01)	김영호(10.05)
	김민석(10.04)	정상규(10.21)
	김종석(10.04)	장세렬(10.26)
구평공장	김금수(10.01)	임우택(10.13)
	이태운(10.05)	구진호(10.15)
	손판석(10.08)	
대불공장	고기홍(10.10)	로히타(10.27)
	찬다나(10.10)	문강오(10.27)
	나자르(10.27)	박용석(10.27)
영암공장	김근호(10.01)	우 이(10.10)
	김효희(10.06)	조길웅(10.10)
	이규현(10.09)	김정희(10.27)
	고경재(10.10)	이예림(10.27)
	김종호(10.10)	인드라제(10.27)
	렉(10.10)	
부설연구소	진병석(10.01)	